

2023년 제1회 교통정책자문회의 회의록

일 시	2023. 1. 11.(수) 16:00	장 소	중회의실
회의명칭	2023년 제1회 교통정책자문위원회		
참 석 자	위원장(구청장), 소관 국·과장, 외부자문위원 등 19명	배석자	교통정책팀장 외 직원 1명
자문내용	수영강변대로 드라이브스루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 검토		
진행흐름	개회 ⇒ 참석자 소개 ⇒ 회의안건 설명 ⇒ 토의 및 자문 ⇒ 폐회		
주요내용(발언요지)			
발언자	발언내용		
○○○	● 지상3층은 어떤 용도인지?		
○○○	● 1층 근린생활시설 커피숍임. 2층에서 주출입이 이루어지고 실내계단을 통해 3층으로 감 2층 36평, 3층 35평으로 총70평임		
○○○	● 드라이브스루는 몇 층인지?		
○○○	● 2층임. 수영강변대로에서 29m 도로로 들어오는 층이 2층이며, 1층은 29m 도로에서 경사로를 타고 내려와서 주차가 50면이 형성되어 있음 ● 1층은 주차장 밖에 없는 시설임		
○○○	● 셀프세차장이 이 구간에 있는지?		
○○○	● 2층에 드라이브스루 입구에 들어오는 걸 보면 왼쪽에 있는 차로는 세차장에 들어가는 전용차로이며, 오른쪽이 드라이브스루 전용차로임		
○○○	● 총 3차로로 형성되어 있고 마지막 3차로가 기계식 전용세차장이고, 기계식 전용세차장 옆 1·2차로가 주문하는 곳, 픽업하는 곳임 ●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며, 총 70평 유동커피로 사용할 계획임		
○○○	● 오늘 교통정책자문위원들이 모인 이유는 드라이브스루를 어떻게 이용하고 운영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, 이 위치에 드라이브스루 커피숍이 위치함으로써 수영강변대로가 막히는 점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는지 자문하기 위해 모인 것임. 그런데 건축사사무소, 건축주는 교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● 커피숍이 주차면을 몇 면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아침 출근시간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기 위해 차로에 차량 정체가 되면, 해운대구· 부산시민이 이용해야 할 차로가 점용된다는 점이 중요함 ●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출퇴근시간 교통량, 월~금 교통량을 조사해서 이 드라이브스루 커피숍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유발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지 교통소통대책을 자문하는 것임 ● 사업지를 안으로 넣어서 진입 가·감속차로를 확보한다든지, 아침 출근시간 수영강변대로의 정체가 심각하니 영업시간을 9시 이후로 하는 등 교통소통 대책을 자문하는 것이지 건축심의를 하는 것이 아님 ● 드라이브스루가 생기면 교통량이 얼마나 될지, 진입·진출로를 통한 교통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 교통소통 대책을 더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		
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해당 드라이브스루 인근 교통량을 5일 동안 조사했고 아침·점심·저녁 수요 체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함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오늘 자료는 건물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고 간선도로와의 진입과 진출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없음 ● 건물의 3개 진출입구에서 어떻게 간선도로와 접하고 있는지, 간선도로에서 차량들이 가속과 감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면에 표현되지 않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보고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나중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하겠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 건물로 인한 주변의 교통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해결방안 제시가 없음 ● 이 건물로 인해 차량 수요가 창출되고, 누적되는 차량 수요로 인한 수영강변대호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● 출입구가 3개인 시설을 입지할 때에는 셋백(Set back)이 필요함 ● 주문장소와 픽업장소까지 동선이 짧고, 세차장까지 겹쳐서 들어오면 세차 차량 대기 시 대각선으로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일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문임 ●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차장을 회전해서 나와야 되는 동선을 선택하지 않음. 수요가 많을 때 주차장으로 유도한다는 것은 드라이브스루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칙이 아님 ● 현재 제시된 드라이브스루 동선 처리는 수영강변대로의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에 부족하고, 진출입구가 3개인 것이 대기주차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, 내부 차량 동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간선도로상 진출입구가 3개인 건축물을 허가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함 ● 만약에 한다면 도면을 인접 교차로까지 작성하여 이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교차로 상류부, 하류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,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임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반여동은 40년 넘게 살고 있고 매일 출퇴근하는 지역으로, 출근 시 차량통행량이 엄청남. 교통 흐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분석해주길 바람. 또한 센텀2지구첨단산업단지, 반여동 재개발 등으로 생각 이상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므로 향후 교통량을 감안하여 고민해주길 바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문의원님들이 일요일 1~3시경 드라이브스루 현장을 보셨으면 좋겠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재 반여동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로 인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옴 ● 드라이브스루 영업으로 인한 민원은 경찰과 구청으로 접수되므로 이러한 시설은 교통량 분석을 해야 함. 수영강변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차량이 한대만 정차하면 그 차선을 사용 못함
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해당 장소 주변을 해운대경찰서에서 2년 동안 관리했음 ● 인근 지역 전체로 수영강변대로 차량의 민원이 너무 심해서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차량 소통을 위해 신호를 수동으로 늘렸으나 시간 대비 효율화만 생각하여 반대로 반여4동에서 나오는 차량의 정체가 너무 심해졌음 ●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소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부득이 다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음. 실제 교통량을 생각하면 수영강변대로의 신호를 조정해야 하지만 주민들이 수용해야만 가능한 일임 ● 반여삼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고, 반여동에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음 ● 해당시설 입구와 교차로가 가까워 차량 정체가 됐을 때 드라이브스루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며, 신호가 풀리면 들어갈 수 있을 것임. 이런 시설 부분과 주변 도로 부분에 대한 상황 판단과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● 경찰에서 뚜렷한 수요 예측이 불가하나 수영강변대로는 60km도로 및 물류 도로로서 대형 차량이 많이 운행하여 사고가 많기도 함 ● 건물 외적으로 보면 드라이브스루 용량이 초과하였을 때 차량을 1층으로 유도하는 것은 실제 교통관리에서 쉽지 않음. 물리적으로 2층 픽업장소를 폐쇄하고 1층 주차장에 새로운 픽업장소가 만들어지면 유도할 수 있겠지만 2층에 픽업장소가 있으면 쉽지 않음. 또한 사례발표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커피, 맥도날드 DT매장과 달리 세차장이 함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 건물은 인근의 반여동 스타벅스와 비교해보면 출입구 모양이 다름 ● 수영강변대로는 60km도로로 이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출입구로바로 들어오지 못함. 따라서 스타벅스는 속도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감속차로와 가속차로가 있음 ● 간선도로에서 진입할 때 속도 편차가 큰 상태에서 출입구가 3개인 것은 문제이며, 수영강변대로는 차량이 정체되면 한 차선의 도로폭이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는 도로폭임을 알고 준비해주길 바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자문위원회 개최 전에 구청에서 공문이 와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음 ● 당시 제출 의견은 이 건축배치 계획으로는 교통체계가 원활할 수 없다는 점과 진입구에서 주문 및 픽업장소까지 거리가 너무 협소하고 진출입구가 3개인 점, 2개 차로를 1개 차로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음 ● 당초 건축 계획에서 오더를 2개소로 늘이고 대기주차면을 3개로 보장하였음 ● 이 건축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는지, 변경할 수 있다면 다른 계획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, 이 건축계획안이 변경될 수 없다면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현장 확인 결과 수영강변도로는 60km 도로로 감속차로·가속차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상 단차가 나서 차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● 또한 차량 진출지점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대기 등 차량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. 차선 확보가 힘들 것 같아서 건축물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지?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내용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해운대구에만 있음 • 교통문제는 공익적인 문제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관철이 되어야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안 나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건축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말인지?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음
○○○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사대표님, 건축주님 고생 많으셨으나 교통 측면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주시길 바람 •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귀속력이나 결정력과 상관없이 의견으로 제시한 부분은 고민해 주길 바람